박원숙 "세파 이겨내고 혼자된 연예계 스타 모여"

KBS 2TV '같이 삽시다' 시즌 2 방송

평균연령 66세…김영란·혜은이·문숙 출연

개성 강한 사람들 만나 예상못한 일 일어날 것

평균연령 66세, 화려한 전성기를 지나 인생 후반전을 준비하는 여배우와 여가수들이 다시 한번 경상남도 남해에서 뭉쳤다.

KBS 2TV는 지난 1일 밤 10시 40분 예능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시즌2를 방송했다.

이번 시즌에는 '좌장' 박원숙과 함께 배우 김영란, 문숙, 가수 혜은이가 함께한다.

박원숙은 온라인 제작발표회에서 "여기 모인 사람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연예계에서 한때 화려하게 살았고, 또 갖은 세파를 다 이겨내고 혼자 된 사람들"이라며 "넷이 앉아있으면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시즌1 끝나고 많은 분이 응원해주셔서 시즌2를 할 수 있게 됐다. 심지어 KBS 1TV에서 2TV로 왔다. 재킷 하나를 벗어 던진 느낌이라 자유롭고 좋다. 더 예능감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김영란의 한식 실력은 시즌1부터 알았지만 이번에는 더 한식의 대가가 돼서 돌아왔다. 또 혜은이는 설거지를 잘한다. 내가 따라잡을 수 없어서 나는 옆에서 마른 행주질이나 하며 외식이나 자주 시켜주려 한다"고 웃었다.

박원숙은 새롭게 합류한 혜은이에 대해서는 "어릴 때부터 봤지만 야리야리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같이 있어 보니 털털하고 솔직하고 선머슴 같은 느낌이 있다. 역시 같이 살아봐야 안다"고 언급했다.

이에 혜은이는 "노래할 때 열심히 하는 것처럼 '같이 삽시다'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친고모 같은 분들과 함께하니 신나고 즐겁다. 주변에서도 요새 나한테 표정이 좋아졌다고 한다"고 했다.

최근 김동현과 이혼한 후 방송 활동 반경을 넓히는 그는 "제2의 삶의 막이 올랐는데 이렇게 새 프로그램도 하게 되니 내게는 의미가 크다"며 "싱글들이 만나서 이렇게 알아가고, 또 시청자들께 진정성 있게 보여드리는 걸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은 "제2의 인생을 얼마나 멋지게 사는지 지켜봐 달라"고, 문숙은 "서로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만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순재 "머슴살이라니…요즘 세상에 그런게 가능하겠느냐"

부인이 전 매니저에 '갑질' 의혹 해명

전 매니저들은 상반된 주장 진실 공방

부인이 전 매니저에게 '갑질'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원로배우 이순재(85·사진)가 "머슴살이라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갑질'을 폭로한 전 매니저와 그 이전 매니저가 상반된 주장을 펴면서 논란은 당분간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순재는 지난달 30일 통화에서 "사적인 일을 시킨 건 잘못된 부분이니 인정하고 사과하겠지만 전날 보도는 과장된 편파 보도"라고 밝혔다.

앞서 SBS TV 'SBS 8 뉴스'는 이순재의 전 매니저 김모 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김 씨는 두 달 간 주당 평균 55시간을 추가수당 없이 일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 생수통 운반, 신발 수선 등 이순재 가족의 허드렛일을 하며 머슴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를 제기하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도 했다.

이순재는 "아내가 힘든 게 있으면 부탁하고 그랬던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약속 시각에 늦지 말라고 지적했는데 그런 게 겹쳤던 모양이다. 나는 한 번도 사람 잘라본 적도 없고 막말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매니저는 회사(SG연기아카데미)에서 채용했다. 보험 문제를 얘기하길래 '네 권리인데 왜 얘기 안 하고 들어왔냐, 문제 생기면 얘기하라'고 했다"며 "회사는 내가 원장으로 있지만 나도 월급 받는다. 주식 한 푼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순재는 그러면서 "김 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 결론을 보고 조치할 건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공식입장을 내고 "(전날) SBS 보도내용은 많은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편파 보도됐다"며 "당사는 이 보도가 그동안 쌓아 올린 (이순재) 선생님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보고 엄정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지난 60여년간 배우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연예계 모범이 되고 배우로서도 훌륭한 길을 걸어오셨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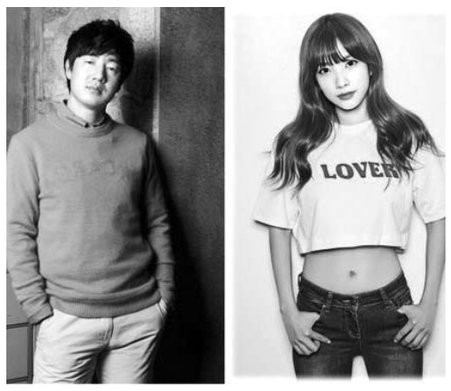
올해 초까지 매니저로 일한 백모 씨는 이순재 측 주장을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SBS 뉴스 인터뷰 마지막에 거론된 배우 지망생인 이전 매니저가 바로 나인 것 같다. 하지만 난 그렇게 인터뷰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백씨는 생수병 들기, 분리수거 등 일부 허드렛일을 도운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이를 노동 착취라고 여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순재 선생님께서는 누굴 머슴처럼 부리거나 부당하게 대우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두둔했다.

반면 '갑질' 의혹을 제보한 전 매니저 김모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순재 아내만의 문제겠지 싶어 이순재에게도 말했지만 '미안하다'라는 사과 대신 '지금까지 다른 매니저들도 다 했는데 왜 너만 유난을 떠느냐'라는 식으로 말해 기가 찼다"고 주장했다.

이순재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입장문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 소속사는 현재 후속 입장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밝힐 예정이다. /연합뉴스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지숙 프로그래머 이두희와 10월 결혼



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방송인 지숙(사진 오른쪽)이 프로그래머 겸 사업가 이두희와 10월 결혼식을 올린다.

지숙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30일 "지숙씨와 예비 신랑 이두희씨가 오는 10월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며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로, 차근차근 준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새 출발을 앞둔 지숙씨의 앞날에 따뜻한 축복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만큼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숙도 이날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두희 오빠와 새로운 시작의 첫발을 함께 내딛기로 했다"며 결혼 소식을 알렸다.

지숙은 "저의 결정에 눈시울을 붉히며 기뻐해 준 레인보우 멤버들과 갑작스러운 기사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준 마음 넓은 레인너스(레인보우 팬클럽)에게 더욱더 뜨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지숙·이두희 커플은 MBC TV 연애 리얼리티 예능 '부러우면 지는거다'에 출연하며 공개 연애를 해왔다. 이들은 전날 방송 마지막 화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발표했다. /연합뉴스

'노벨상 가수' 밥 딜런 건재 새 앨범 빌보드 2위 올라

노벨문학상을받은 79세의 밥 딜런이 새 앨범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최상위권에 올리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지난달 30일 빌보드에 따르면 밥 딜런이 지난달 19일 발매한 정규 39집 '러프 앤드 라우디 웨이즈'(Rough and Rowdy Ways)는 '빌보드 200' 최신 차트에서 2위에 올랐다.

이로써 밥 딜런은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10년마다 새로운 앨범으로 '빌보드 200' 40위 안에 든 최초의 가수가 됐다. /연합뉴스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행운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북문대로 35(운암동)
상가·아파트·주택·토지 각종 부동산 매매 상담
고객만족! 책임중개!
☎ 062)225-3303, 010-2651-6409

비 비 가
동구 대인동 영무파라드2차 1층
"완벽한 한그릇 비빔밥"
비빔밥 & 해산물
비비가비빔밥, 각종해산물비빔밥, 돌솥비빔밥, 연어초밥, 회세트
☎ 062)229-1008, 010-8572-0999

사랑방공인중개사 사무소
북구 운암동 미라보3차@상가동 3호
아파트, 빌라, 주택, 상가, 토지, 임야 매매·전월세
각종부동산 매매 상담 신용본위
☎ 062)574-8924, 010-9332-8184

동 양 철 학 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유)신 화 로 프
본점 : 나주시 청동길 244
PP로프, 안전로프, 형광로프, PE로프,
비닐, 천막, 안전망 전국최저가 도·소매
☎ 061)335-2301~2, 010-3429-6400

퀸 타로카드
지하철 금남로5가역 4번출구앞(신한은행옆)
궁합, 사주, 신수, 취직운, 택일, 작명,
운수판단, 인생상담
타로마스터 ☎ 010-3640-6429

마루전통한방차전문점
나주시 영산포로184-1 (영산포우체국 앞)
십전대봉탕, 쌍화탕, 대추탕, 오미자차, 생강차
각종과일주스, 구워낸 가래떡과 조청을 드립니다
☎ 061)333-6567, 010-7200-6567

뮤엠영어동림캠퍼스
북구 동림동 푸른마을4단지상가 1층
1:1 맞춤 커리큘럼 뮤엠영어에 있습니다.
원장 개인지도 초·중등생 수시모집
☎ 062)266-1221, 010-2425-3093

석 당 화 랑
동구 궁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고 전 방
동구 궁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미가한우명가
나주시 풍물시장2길 54(영산포버스터미널뒷편)
생고기, 생고기비빔밥, 떡갈비정식
☎ 061)333-0505, 010-4390-33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궁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한성꽃화원
나주시 나주로71 (송월동 LG화학앞)
근조·축하화환, 동·서양란, 관엽 전국배달
☎ 061)334-3200, 010-3623-6921

만 福 당
동구 제봉로 184번길 5-9 (대인시장내)
골동품, 석물, 도자기, 민속품, 고가구
미술품 매도·매입합니다.
찾는 물품을 찾아드립니다.
☎ 062)959-0680, 010-4602-0680

초 대 화 랑
동구 궁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장 어 수 산
북구 서암대로 88(신안다리앞)
무항생제 장어사용
포장배달·전국택배 배송, 선물포장해드립니다.
신용본위
☎ 062)412-1961, 010-5828-1961

우 리 식 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원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천상일월태주명
나주시 남외동33-3번지 남고문뒤편
종합, 사주, 신수, 택일 전문점
☎ 010-2617-3635

자연모가발 안병원헤어샵
동구 롯데백화점옆, 금남전자상가 5층
자연모 남여 가발 맞춤 전문!
중형가발을 자연모 신상품으로 중모 리폼·대여가능
☎ 062)227-8084, 010-3608-2943

박 당 화 랑
동구 궁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